

영암대회 오늘 예선

역사적인 F1 코리아 그랑프리에는 24명의 드라이버가운데 월드 챔피언 경력을 가진 사람이 4명이나 된다. 스타들의 접전장이 된 한국대회는 올 시즌 월드 챔피언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3개 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1위 웨버(220점)부터

4위 해밀턴(192점)까지 점수차가 28점에 불과해 한국대회에서 1·2위를 차지하는 드라이버가 월드 챔피언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영암서킷에서는 선두권 드라이버와 돌아온 황제 슈마허를 눈여겨 보자.

'올해의 우승 후보' 마크 웨버

●국적 호주 ●출생 1976. 8. 27
 ●소속 레드불 ●포디엄 19회
 ●득점 389.5점 ●종합우승 0회
 ●결승 최고성적 1위 6회 ●예선 최고성적 1위 6회
 ●주요 경력 통산 기록 기준

2007 ■ F1 유로피언 그랑프리 3위
 2008~현재 ■ 소속 레드불 팀
 2009 ■ F1 독일 그랑프리 1위
 2010 ■ F1 스페인 그랑프리 1위
 ■ F1 모나코 그랑프리 1위
 ■ F1 영국 그랑프리 1위
 ■ F1 헝가리 그랑프리 1위
 ■ F1 일본 그랑프리 2위

'돌아온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

●국적 독일 ●출생 1969.1.3
 ●신장 174cm ●체중 68kg
 ●소속 메르세데스 지피 ●포디엄 154회
 ●득점 1,423점 ●종합우승 7회
 ●결승 최고성적 1위 91회 ●예선 최고성적 1위 68회
 ●주요 경력 통산 기록 기준

1996~2006 ■ 소속 페라리 팀
 2004 ■ F1 독일 그랑프리대회 우승
 2005 ■ F1 미국 그랑프리대회 우승
 2006 ■ F1 말레이시아 그랑프리대회 우승
 ■ F1 유럽 그랑프리대회 우승
 ■ F1 그랑프리 12차 시리즈 호켄하임대회 우승
 2009.12~현재 ■ 소속 메르세데스 지피팀 (2006년 은퇴 후 복귀)

'거침없는 스피드' 세바스찬 베텔

●국적 독일 ●출생 1987.7.3
 ●소속 레드불 ●포디엄 17회
 ●득점 331점 ●종합우승 0회
 ●결승 최고성적 1위 8회 ●예선 최고성적 1위 13회
 ●주요 경력 통산 기록 기준

2009 ■ 레드불 소속
 ■ F1 중국 그랑프리 1위
 ■ F1 영국 그랑프리 1위
 ■ F1 일본 그랑프리 1위
 ■ F1 아부다비 그랑프리 1위
 2010 ■ F1 말레이시아 그랑프리 1위
 ■ F1 월드챔피언십 9라운드 유럽 그랑프리 우승
 ■ F1 월드챔피언십 11라운드 3위
 ■ F1 일본 그랑프리 우승

'2009 F1 챔피언' 젠슨 버튼

●국적 영국 ●출생 1980. 1. 19
 ●신장 183cm ●체중 71kg
 ●소속 맥라렌 메르세데스 ●포디엄 30회
 ●득점 516점 ●종합우승 1회
 ●결승 최고성적 1위 9회 ●예선 최고성적 1위 7회
 ●주요 경력 통산 기록 기준

2009 ■ 소속 브라운GP 팀
 ■ F1 모나코 그랑프리 1위
 ■ F1 스페인 그랑프리 1위
 ■ F1 바레인 그랑프리 1위
 ■ F1 말레이시아 그랑프리 1위
 2010 ■ 소속 맥라렌 메르세데스 팀
 ■ F1 중국 그랑프리 우승
 ■ F1 호주 그랑프리 우승
 ■ 라우레우스 올해의 신인상

'저돌적 레이스' 페르난도 알론소

●국적 스페인 ●출생 1981.7.29
 ●소속 페라리 ●포디엄 61회
 ●득점 783점 ●종합우승 2회
 ●결승 최고성적 1위 25회 ●예선 최고성적 1위 20회
 ●주요 경력 통산 기록 기준

2007 ■ 모나코 F1 그랑프리 우승
 2008 ■ 일본·싱가포르 그랑프리 우승
 2008~2009 ■ ING 르노 F1 팀
 2009 ■ 소속 스쿠데리아 페라리 말보로 팀
 ■ F1 싱가포르 15라운드 그랑프리 우승
 ■ FA 포뮬러1 월드 챔피언십 이탈리아 그랑프리 우승
 ■ F1 월드챔피언십 11라운드 우승
 2010 ■ F1 월드챔피언십 개막전 우승

첫 종합우승 노려

작년 8차례 시상대 오르며 두각

184cm 장신으로 올 시즌 첫 종합 우승을 노리고 있다. 2002년 처음 F1에 데뷔했을 때만 해도 한 시즌에 랭킹 포인트 2점밖에 따내지 못했지만 올해는 벌써 220점을 획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작년에 눈부시게 성장했다. 지난해 독일 대회에서 처음 우승을 차지한 웨버는 2009시즌 8차례나 시상대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시즌을 통틀어 3위 이내에 입상한 것이 두 번뿐이었던 웨버로서는 놀라운 발전이었다.

많은 훈련을 통해 기량을 늘린 이유도 있지만 지난 시즌 '돌풍의 팀'이었던 레드불의 머신 설계자 에드리안 뉴이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2009년부터 표면에 흠이 없는 슬릭 타이어의 사용이 가능해졌고 차체 앞 날개와 뒷날개의 규정이 바뀌면서 머신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잡기로 유명한 뉴이의 힘이 웨버 '대기만성'의 원동력이 된 셈이다.

웨버가 올해 특히 더 빠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데는 규정 변화도 한몫을 했다. 지난 시즌까지 차체와 드라이버의 무게를 합해 605kg 이상이어야 했는데 올해 15kg 늘어난 620kg까지 허용이 되면서 여유가 생긴 덕이다.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웨버가 좋은 성적을 낸다면 1980년 앨런 존스 이후 30년 만에 호주 출신 챔피언 탄생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전설의 드라이버

2006년 현역 은퇴 뒤 올시즌 복귀

F1이 처음 열리는 한국에서도 슈마허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06년 현역에서 물러났다가 올 시즌 복귀해 전성기 때만 못하지만 여전히 F1에서 일반 팬들에게 가장 친숙한 존재다.

1992년부터 F1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슈마허는 1994년부터 2년 연속, 다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정상에 오르는 등 모두 7차례나 F1 종합 챔피언을 차지한 전설적인 선수다.

은퇴하기 전까지 스포츠 선수 최고 수입 1위를 놓고 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와 다투기도 했다. 통산 예선 1위 68회, 최고 속도 랩타임 기록 76회, 득점 1천 423점 등 다른 선수가 넘보기 어려운 기록을 갖고 있다. 종합 우승 7회는 후안 마누엘 판지오(아르헨티나)의 5회를 앞서 가장 많고 레이스 우승 횟수 역시 91회로 2위 알랭 프로스트(프랑스,51회)를 압도한다.

또 2004년에는 18차례 경주에서 13번이나 우승을 차지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도 세웠다.

4년 만에 복귀한데다 드라이버로서 고령이란 점 때문에 올해 성적은 시원치 않겠지만 2주전 일본대회에서 6위를 차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대회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업계에서도 "슈마허가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 대회 성공을 위한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비에 강한 '마스터'

수준전 강자... 비 예보에 우승 점쳐

1987년에 태어난 베텔은 F1 정상을 다루는 대표적인 젊은 드라이버다. 19세였던 2006년 F1의 하부 리그인 F3에서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종합 2위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낸 베텔은 시즌 후반부에 연속 주황 드라이버 자격으로 F1에 입성했다.

2007년에는 20세 나이에 랭킹 포인트를 획득해 역대 가장 어린 나이에 포인트를 따낸 드라이버가 됐다.

이 밖에도 최연소에 관한 기록을 몇 개 더 갖고 있다. 같은 해 일본 대회에서 선두를 달려 최연소 리드 드라이버가 됐고 2008년에는 이탈리아 대회에서 예선 1위를 차지한 것도 역시 최연소 기록으로 남아 있다.

베텔은 "어릴 때 세 명의 마이클(Michael)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 세 명은 바로 미하엘 슈마허와 마이클 썬슨, 마이클 조던이다. 썬슨을 좋아하며 가수의 꿈을 키우기도 했던 베텔은 그때의 끼가 남아있어서인지 서킷 안팎에서 종종 장난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선수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수준전에서 우승을 휩쓸어 '레인 마스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결선이 열리는 24일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베텔의 우승 가능성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디펜딩 챔피언

직선주로 강점...영암서킷 우승 후보

지난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우승을 차지한 버튼은 랠리 드라이버였던 아버지 존의 영향을 받아 드라이버의 길에 뛰어 들었다.

2000년 F1 데뷔 이후 2006년 8월 헝가리 대회에서 처음 1위를 차지했다. 무려 113차례 레이스 도전 만에 첫 우승을 맛본 대표적인 대기만성 형이다. 윌리엄스팀으로 F1에 데뷔한후 베네톤, 르노, 브리티시 아메리칸 레이싱을 거쳐 지난해 브라운GP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월드 챔피언에 등극했다.

한국과 인연도 있는 선수다. 1999년 11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F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에서 F3 준우승을 차지한 다음해 F1으로 진출했고 그로부터 10년 만에 종합 우승이라는 엄청난 사고를 썼다.

올해 4월 중국 상하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버튼은 이번 한국 대회에서도 유력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상하이 경기장이 928m의 직선 주로가 있고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은 그보다 더 긴 1.2km의 직선 주로가 있기 때문이다. 직선 주로에서 속도를 내는 데 강한 모습을 보여온 버튼이기 때문에 한국 대회에서도 힘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4년만에 패권 도전

역대 최연소 챔피언... 제2의 전성기

2005년과 2006년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챔피언 출신이다.

당시에는 'F1 황제'로 불리는 미하엘 슈마허도 현역으로 활약하던 시절이었지만 알론소가 2년 연속 정상에 오르며 슈마허를 '패배자'로 끌어내렸다.

특히 2005년에는 불과 24세 58일의 나이로 종합 우승을 차지해 역대 최연소 챔피언의 영예도 누렸다. 이 기록은 2008년 루이스 해밀턴(영국)이 23세 9개월의 나이로 우승해 깨졌지만 알론소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사건이다.

최연소 2년 연속 우승 기록은 아직도 알론소가 갖고 있다. 3년 연속 100점 이상을 얻은 드라이버도 슈마허에 이어 알론소가 두 번째이다.

2년간의 침체기를 겪은 그는 올해 르노에서 페라리로 말을 갈아탄 이후 206점을 획득해 1위 웨버를 맹렬히 추격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3월 바레인 대회를 시작으로 올 시즌 4승을 거두고 있다. 알론소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남은 두 차례 레이스에서 시즌 챔피언의 향방은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F1! 최고의 경기를 선보일 것입니다!

56년 전통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TEL : 062-605-1114

패밀리레스토랑- **베네치아 월드컵점** TEL : 062-675-6636

국가대표브랜드 '프리드' **현대종합상조** TEL : 062-524-3740

인터넷 방송의 최강자- **CNN21방송** TEL : 062-515-8888